경남신문

2018년 05월 31일 목요일 009면 사회

김해율하도서관이 내일 문을 연다. 사진은 도서관 내 어린이자료실./김해시/

김해율하도서관, 책이 기분좋게 술술

김해서부문화센터 내… 내일 개관
자료실·강의실·세미나실 등 갖춰

김해지역 6번째 시립도서관이자 가장 면적이 넓은 김해율하도서관이 6월 1일 개관한다.

김해율하도서관은 김해서부문화센터 내에 있으며, 지상 3층 연면적 5648㎡의 대규모 공공도서관으로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등의 자료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다.

어린이자료실은 주성희 그림책 작가가 그린 벽화가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다. 수유실, 어린이전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3층 일반자료실 1에는 대형열람테이블과 전자신문코너, 연속간행물실 등 최첨단 미디어와 도서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4층 일반자료실 2에는 패밀리룸 2개와 스터디룸이 있으며, 3·4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대규모 수직정원을 조성했다. 그밖에도 세미나실과 강의실, 야외테라스와 휴게실 등 기존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한 카페 같은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김명현 기자

창원일보

2018년 05월 31일 목요일 014면 문화

'김해시율하도서관' 내일 개관

김해 6번째 시립도서관이자 단일 도서관 최대규모

김해의 6번째 시립도서관이자 단일 도서관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김해율하도서관<사진>이 다음달인 6월 1일 개관한다.

김해율하도서관은 김해서부문화센터내에 위치한 지상3층 연면적 5,648㎡의 대규모 공공도서관으로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등의 자료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다.

어린이자료실의 모든 가구는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제작했고 그림책 작가인 주성희가 그린 벽화가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다.

수유실, 어린이전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어린이의 독서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로 어린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밖에도 대규모 강좌 및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실과 강의실,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야외테라스와 휴게실 등 기존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한 카페같은 공간으로 구성했다.

도서관 개관 및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330-7161) 및 김해통합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gimha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환식 기자

경남연합일보

2018년 05월 31일 목요일 014면 문화

장유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연속 선정

새로운 독서문화 적극 조성

김해시 장유도서관(관장 차미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도서관을 거점으로 인문학 도서와 강연, 지역탐방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인문학 대중화 기여 및 자생적 인문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에서는 장유도서관, 칠암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등 3곳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권역별로 6월부터 진행되며, 장유도서관에서는 인문학 사업 운영으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한 김해시와 함께 새로운 독서문화 조성에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유도서관은 길위의 인문학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5개월간 '역도산(歷都散) : 역사, 도시, 산책'을 주제로 강연 강연 6회, 탐방 3회, 후속모임 1회로 구성된 인문학 프로그램을 1차, 2차, 3차로 나눠 운영한다.

1차 프로그램은 다음 달 6월 14일, 21일에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지역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용태(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부원장), 남종석(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가 '전통과 근대, 혼류의 도시 대구'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와 연계해 오는 6월 30일 대구(약령시,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감영 일대) 현장 탐방도 진행된다. 1, 2, 3차 프로그램 참가자의 후속모임은 10월 27일에 열린다.

도서관 관계자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김해지역 독서 동아리 등 지역 인문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 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김해시공공시설예약서비스)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김해통합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imhae.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접수(330-7463)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상수기자

경남매일

2018년 05월 31일 목요일 016면 문화

민·관 함께 독서 문화 꽃피우자

김해 거버넌스 구축 집단회
1부 특강·2부 토론 진행

영남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독서대전의 성공을 위해 교육·문화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해시는 30일 화정글샘도서관에서 교육·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독서진흥 행정을 담당하는 20여 명의 관계자가 모여 '김해시 도서관·독서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김해시 도서관, 독서문화 발전 방향과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집담회는 영남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근욱 총괄 감독이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했다.

1부에서는 (사)행복한아침독서 한상수 이사장의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독서문화-고양시 책·도서관·문화 정책 포럼' 사례 발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안찬수 상임이사의 '책 읽기와 시민운동' 특강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안찬수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주제토론과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통해 도서관 문화 발전에 대해 민·관이 함께 고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임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김해시 도서관과 책 문화 포럼'이 결성돼 독서대전 개최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본 행사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김해 가야의 거리와 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daily.com

김해시 도서관·독서문화 거버넌스 구축 위한 집담회(集談會) 개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도시 김해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시는 30일, 화정글샘도서관에서 교육·문화 관련 시민단체와 도서관과 독서진흥 행정을 담당하는 20여명의 관계자가 모여 <김해시 도서관·독서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도서관, 독서문화 발전 방향과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집담회는 영남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근욱 총괄감독이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김해지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사)행복한아침독서 한상수 이사장의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독서문화 – 고양시 책·도서관·문화 정책 포럼' 사례 발표와 김해시와 협약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안찬수 상임이사의 '책읽기와 시민운동'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2부에서는 안찬수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주제토론과 타지자체의 성공사례를 통해 김해시만의 책읽기와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차영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장은 '이번 모임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김해시 도서관과 책문화 포럼'이 결성되어 독서대전 개최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본 행사는 8.31부터 9.2까지 김해 가야의 거리와 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이다.